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연번	표제항 (영역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1	경주 ^ㅅ 무열왕릉	%	경주 ^ㅅ 무열왕릉(慶州武烈王陵) 『고적』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에 있는 신라 태종 무열왕의 능. 사적 제20호.	표제어 추가
1-2	경주 ^ㅅ 불국사	%	경주 ^ㅅ 불국사(慶州佛國寺) 『고적』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의 토함산 기슭에 있는 절. 신라 법흥왕 15년(528)에 법흥왕의 어머니인 영제부인(迎帝夫人)과 기윤부인(己尹夫人)이 창건하였고 경덕왕 10년(751)에 김대성이 크게 중창하였다. 석굴암과 함께 신라 불교 예술의 귀중한 유적으로 삼층 석탑, 다보탑, 백운교, 연화교 따위가 있다. 석굴암과 더불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11 교구 본사로 되어 있다. 사적 제502호.	표제어 추가
1-3	머리둘레	%	머리-둘레 「명사」 머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둘러 낸 길이. ㄴ두위03(頭圍).	표제어 추가
1-4	엉덩이둘레	%	엉덩이-둘레[영 : ----] 「명사」 엉덩이의 가장 굵은 부분을 둘러 낸 길이. ㄴ둔위03(臀圍).	표제어 추가
1-5	열차표	%	열차-표(列車票) 「명사」 열차를 타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는 표. ㄴ[열차표] 예매{열차표를} 끊다/{열차표를} 팔다/청량리역에서 제천 가는 {열차표를} 두 장 샀다.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표제어 추가
1-6	영화표	%	영화-표(映畫票) 「명사」 영화를 보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는 표. ㄴ[영화표를] 끊다/{영화표를} 사	표제어 추가

			다/〈영화표를〉 팔다/나는 인터넷으로 {영화표를} 예매해 두었다./남자 친구는 할인 쿠폰을 써서 {영화표를} 싸게 구매했다.	
1-7	와닿다	%	와-닿다[-다타] [-닿애[다], -닿으니[다-], -닿느[단-], -닿소[다쓰]] '동사, 【...에/에게】 '1, 어떤 글이나 말, 음악 따위가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게 되다. ¶초 선생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내 마음에 {와닿는다}/남자 친구와의 이별로 힘든 나에게 그 음악은 크게 {와닿았다}. '2, 어떤 사실이나 경험 따위가 실감이 되다. ¶새로 맡은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표제어 추가
1-8	제삼	%	제삼(第三)제 : -] '명사, 논의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전혀 다른 것. ¶{제삼} 장소/{제삼} 후보자/{제삼의} 나라/{제삼의} 대안/{제삼의} 인물/{제삼의} 방안을 강구하다.	표제어 추가
2-1	네덜란드령^ 동인도	네덜란드령 동인도	네덜란드령^동인도	표제어 수정
3-1	뚝이	'1, '뚝이'의 준말.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뚝} 닮았다./꼬마는 잘 모르겠다는 {뚝} 눈만 꺾박이고 있었다./마치 구름을 걷는 {뚝} 도무지 생사가 아닌 것만 같았다./지금도 하얀 눈을 보면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뚝} 느껴진다./하늘이 맑으니 남산이 손에 잡힐 {뚝} 가깝게 다가온다. '2, ((‘은 뚝만 뚝’, ‘는 뚝만는 뚝’, ‘을 뚝말 뚝’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잠을 잔 {뚝} 만 {뚝} 정신이 하나도 없다./그는 신문	'1,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뚝이' '1'의 준말.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뚝} 닮았다./마치 구름을 걷는 {뚝} 도무지 생사가 아닌 것만 같았다./지금도 하얀 눈을 보면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뚝} 느껴진다./하늘이 맑으니 남산이 손에 잡힐 {뚝} 가깝게 다가온다./경호는 속에서 불덩이가 치미는 {뚝}, '에 이 더워! <심훈, 영원의 미소> '2,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뚝이' '2'의 준말. ¶꼬마는 잘 모르겠다는 {뚝} 눈만 꺾박이고 있었다./우중충 흐린 하늘은 곧 눈발이라도 세울, 이제 한창 밝을 정월 보름달이 시세를 잃고 있는 밤이었다.<전상국, 동행>	뜻풀이 추가

		을 보는 {듯} 마는 {듯} 뒤적거리고만 있다./돌탑이 무너질 {듯} 말 {듯} 위태로워 보인다.	『3, ((‘은 듯 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잠을 잔 {듯} 만 {듯} 정신이 하나도 없다./그는 신문을 보는 {듯} 마는 {듯} 뒤적거리고만 있다./돌탑이 무너질 {듯} 말 {듯} 위태로워 보인다. 『4, ((‘-르 듯 르 듯 하다’ 구성으로 쓰여)) ‘행동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안타깝게도 수돗물은 나을 {듯} 나을 {듯} 하면서도 나오지 않았다./영희가 무엇인가 말할 {듯} 말할 {듯} 하다가 끝내는 종종걸음 치며 사라졌다./선혜는 자신과 권오송의 인연을 접치듯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며 이어지는 배 곱질을 바라본다. <박경리, 토지>	
3-2	듯이01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떨 {듯이} 기뻐하다/아는 {듯이} 말했다./거울 같은 매얼을 속으로 모가 죽은 둥근 자갈과 물이끼와 모래알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깝게 보이고... <김남천, 남매>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1,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떨 {듯이} 기뻐하다/아는 {듯이} 말했다./거울 같은 매얼을 속으로 모가 죽은 둥근 자갈과 물이끼와 모래알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깝게 보이고... <김남천, 남매> 『2,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그의 행동을 보아하니, 곧 떠날 {듯이} 보인다./그녀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였다.	뜻풀이 추가
3-3	문안01	사대문 안. 『그는 저녁때가 돼서야 {문안에} 들어섰다./임공리란 늙은 각궁 나인과 {문안} 부잣집 여인들을 유인하여 돈 수십만 냇을 거두어... <독립신문>	『1, 문의 안쪽. 『{문안에} 당도하다/{문안으로} 들어와 안을 살피다/{문안으로} 걸어 들어오다. 『2, 사대문 안. 『그는 저녁때가 돼서야 {문안에} 들어섰다./임공리란 늙은 각궁 나인과 {문안} 부잣집 여인들을 유인하여 돈 수십만 냇을 거두어... <독립신문>	뜻풀이 추가
3-4	씩0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수량이나 크기로	『1,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수량이나 크기로 나뉘거나 되풀이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뜻풀이 추가

		나누거나 되풀이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조금씩』/『며칠씩』/『하나씩』/두 {사람씩}/열 {그릇씩}/다섯 {마리씩}/한 {번씩}/한 {걸음씩}/한 사람 앞에 수건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조금씩』/『며칠씩』/『하나씩』/두 {사람씩}/열 {그릇씩}/다섯 {마리씩}/한 {번씩}/한 {걸음씩}/한 사람 앞에 수건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2,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화자가 예상하거나 기대한 수준을 넘어서는 말 뒤에서 '아주 뜻밖' 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속성이나 정도의 강조를 나타낸다. 주로 '씩이나' 꼴로 쓰인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고기씩이나 사 왔니?』	
3-5	주다1	[1][1] 【…에/에게 …을】 『1,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개에게 먹이를 {주다}/아이에게 용돈을 {주다}/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오정희, 중국인 거리> 『2,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 『일등 항해사에게 가산점을 {주다}/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다}. 『3,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 『고통을 {주다}/상처를 {주다}/피해를 {주다}/어머니는 동생과 싸웠다고 나에게 핀잔을 {주셨다}. 『4, 실이나 줄 따위를 풀리는 쪽으로 더 풀어 내다. 『연줄을 더 많이 {줘라}. 『5, 시선이나 몸짓 따위를 어떤 곳으로 향하다. 『대문 위로 눈을 {주니}, 가시철사가 치어져 있었다. <황순원, 카인의 후예> 『6, 주사나 침 따위를 놓다. 『영덩이에 주사를 {주다}/발목이 빠졌다고 하니 침을 좀 {줘야겠군}. 『7, 속력이나 힘 따위를 놓다. 『손에 힘을 더 {줘라}. 『8, 다른 사람에게 정이나	[1][1] 【…에/에게 …을】 『1,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개에게 먹이를 {주다}/아이에게 용돈을 주다/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오정희, 중국인 거리> 『2, 시간 따위를 남에게 허락하여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너에게 3일의 시간을 {주겠다}/바쁜 일상이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려고} 노력한다./나에게 며칠 말미를 {주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어떻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3,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 『혜택을 {주다}/일등 항해사에게 가산점을 {주다}/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다}. 『4, 남에게 어떤 역할 따위를 가지게 하다.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겠다}. 『5,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 『고통을 {주다}/기쁨을 {주다}/사랑을 {주다}/상처를 {주다}/피해를 {주다}/어머니는 동생과 싸웠다고 나에게 핀잔을 {주셨다}. 『6, 실이나 줄 따위를 풀리는 쪽으로 더 풀어 내다. 『연줄을 더 많이 {줘라}. 『7, 남에게 경고, 암시 따위를 하	뜻풀이 추가 (수정)

		마음을 베풀거나 터놓다. 『그는 친구에게도 좀처럼 정을 {주지} 않는다. 『9, 여자가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여 성적 관계를 맺다.	여 어떤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다. 『수업 시간에 친구 한 녀석이 계속 떠들자 선생님께서 그에게 주의를 {주셨다}/그는 나에게 아무런 암시도 {주지} 않고 갑자기 떠났다. 『8, 시선이나 관심 따위를 어떤 곳으로 향하다. 『{눈길을} 주다/나에게 괜한 관심 {주지} 마/대문 위로 눈을 {주니}, 가시철사가 치어져 있었다.《황순원, 카인의 후예》 『9, 주사나 침 따위를 놓다. 『영덩이에 주사를 {주다}/발목이 빠였다고 하니 침을 좀 {줘야겠군}. 『10, 속력이나 힘 따위를 내다. 『손에 힘을 더 {줘라}. 『11, 다른 사람에게 정이나 마음을 베풀거나 터놓다. 『그는 친구에게도 좀처럼 정을 {주지} 않는다.	
3-6	탄약	『1, 탄알과 화약을 아울러 이르는 말. 『{탄약} 몇 발/총에 {탄약을} 재다. 『2, 『군사』 =탄환01(彈丸) 『2』.	『1, 탄알과 화약을 아울러 이르는 말. 『{탄약} 몇 발/총에 {탄약을} 재다. 『2, 『군사』 =탄환01(彈丸) 『2』. 『3, 『군사』 전투나 시설물 파괴 등에 사용하는 폭발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화약제, 신평탄, 점화용 화합물, 세균 및 화학방 물질 따위가 장전되어 있다.	뜻풀이 추가
3-7	해맑다	하얗고 맑다. 『{해맑은} 얼굴/{해맑은} 눈망울/{해맑은} 미소/{해맑은} 음성/소나무 가지 새로 {해맑은} 아침 햇살이 들이비치고 있었다.《황순원, 카인의 후예》	『1, 물질적인 대상물이 환하게 맑다. 『{해맑은} 박꽃/{해맑은} 살결/{해맑은} 이마/{해맑은} 피부. 『2, 사람의 모습이나 자연의 대상 따위에 잡스러운 것이 섞이지 않아 티 없이 깨끗하다. 『{해맑게} 웃다/{해맑은} 눈동자/눈망울이 {해맑다}/{해맑은} 미소/{해맑은} 표정/이튿날 아침 눈을 떠 보니 하늘은 언제 비를 뿌렸느냐는 듯이 닦아 놓은 면경알처럼 {해맑았고},...《문순태, 타오르는 강》/소나무 가지 새로 {해맑은} 아침 햇살이 들이비치고 있었다.《황순원, 카인의 후예》 『3, 소리 따위가 탁하지 않고 경	뜻풀이 추가 (수정)

			쾌하다. 『(해맑은) 음성/(해맑은) 웃음소리/(해맑은) 교회당의 종소리/(해맑은) 피아노 소리/멀리서 {해맑은} 풍경 소리가 들린다.	
4-1	간과되다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u>넘어</u> 가다.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u>넘겨</u> 지다.	뜻풀이 수정
4-2	거방지다	『3』 매우 푸지다.	『3』 =결판지다『1』.	뜻풀이 수정
4-3	결판지다	『1』 → 거방지다. 『2』 『북』 너무죽하고 듬직하다. 『얼굴이 {결판지게} 생기다.《선대》	『1』 매우 푸지다. ≡거방지다 『3』. 『2』 동작이나 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 『3』 『북』 너무죽하고 듬직하다. 『얼굴이 {결판지게} 생기다.《선대》	뜻풀이 수정
4-4	다큐멘터리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극적인 허구성이 없이 그 전개에 따라 사실적으로 그린 것.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의 드라마나 소설, 기록 따위가 있다.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사실적으로 담은 영상물이나 기록물.	뜻풀이 수정
4-5	대륙01	『1』 넓은 면적을 가지고 해양의 영향이 내륙부에까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육지. 일반적으로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극의 여섯 대륙을 이룬다.	『1』 넓은 면적을 가지고 해양의 영향이 내륙부에까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육지. 일반적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등을 이룬다.	뜻풀이 수정
4-6	마침표01	『2』 문장 부호의 하나. 주로 문장을 끝맺을 때 쓰는 것으로 온점(.),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가 있다. ≡종지부01·종지점.	『2』 이전 문장 부호 규정에서 온점(.),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를 아울러 이르던 말. 2014년 문장 부호 개정 시에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종지부01·종지점.	뜻풀이 수정
4-7	십자가상 [△] 제사	(十字架傷祭祀)	(十字架上帝祭祀)	원어 수정
4-8	안은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며 성분절을 가진 문장. ‘지구가 동글다는 것은 오래전에 증명되었다.’에서 ‘지구가 동글다는 것’은 안긴문장이고,	하나의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며 성분절을 가진 문장. ‘철수가 그린 풍경화가 전람회에서 특선으로 뽑혔다.’에서 ‘철수가 그린’이 안긴문장이고, 이를 포함하	뜻풀이 수정

		전체의 문장은 안은문장이 다. ◻가진월·내포문·안은 월·유숙문·포유문.	는 전체의 문장이 안은문장이 다. ◻가진월·내포문·안은월·유 숙문·포유문.	
4-9	장애인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 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 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활에 <u>제약을 받는</u> 사람. ◻ 장애자.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u>정 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u> . ◻장애자.	뜻풀이 수정
4-10	저귀	저귀(가) 둘다 「관용구」 <u>저 귀가 씌워</u> 몹시 얇게 되다.	저귀(가) 둘다 「관용구」 <u>저귀에 씌 어</u> 몹시 얇게 되다.	관용구 뜻풀이 수정
4-11	페미니스트	‘2」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 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던 말.	뜻풀이 수정
4-12	하교05	[2]((체언 뒤에 붙어))((구어 체로) 둘 이상의 사물을 같 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하며.	[2]((체언 뒤에 붙어))((구어체로)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 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 사. ◻하며.	뜻풀이 수정
4-13	한국어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형 태상으로는 교착어이고, 계 통적으로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한반도 전역 및 제 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 변의 섬에서 쓴다. 어순(語 順)은 주어, 목적어(또는 보 어), 술어의 순이며 꾸미는 말이 꾸미를 받는 말의 앞 에 놓이는 것 따위의 특성 이 있다. ◻한국말·한말01· 한어03.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형태상 으로는 교착어이고, 계통적으 로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보 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반도 전 역 및 제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쓴다. 어순(語順) 은 주어, 목적어(또는 보어), 술 어의 순이며 꾸미는 말이 꾸미 를 받는 말의 앞에 놓이는 것 따 위의 특성이 있다. ◻한국말·한 말01·한어03.	뜻풀이 수정
4-14	화번공주	(花蕃公主)	(和蕃公主)	원어 수정
4-15	히파티아	고대 이집트의 철학자(370? ~414). 아름다운 용모로 <u>널리 알려졌으나</u> , 알렉산드리 아의 대주교인 키릴로스의 선동으로 군중에게 맞아 죽 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370?~ 414). 신플라톤주의의 입장을 취 했으며 학식, 강의로 유명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인 키릴 로스의 선동으로 군중에게 맞아 죽었다는 설이 있다.	뜻풀이 수정
5-1	주저05	『(주저) 없이 말하다/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말	『과연 그 무섭고 비밀한 소굴에 발을 들여놓게 할 만큼 믿을 만	용례 수정

		씀하세요./~/내가 조금의 {주저도} 없이 배달 대상자의 집을 찾아 우유를 넣는 것을 보고 주인은 놀란 모양으로 중얼거렸다.《이병주, 지리산》	한 사람일까? 역시 {주저가} 되는 것이다.《염상섭, 무화과》/나 이 든 치안대원의 표정이 잠깐 {주저로} 굳어지더니 이내 풀어졌다.《이문열, 영웅 시대》/~/건달기가 많고 겁이 없어 보였으나 이시명도 천주당에 가는 데는 약간 {주저를} 느꼈던 것이 분명했다.《한무숙, 만남》	
--	--	--	---	--